

# 곡성,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성료

### 15농가 참여 7,600만원 판매 레일바이크·장미꽃 포토존 눈길 구매 고객 유기농 백세미 증정도

곡성군이 지난달 21일부터 광주신세계백화점 이벤트홀에서 운영한 '곡성군 농특산물 상생협력 직거래 장터'가 최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직거래 장터는 농특산물 직거래를 통한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했다. 곡성군 우수 농특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15농가가 참여해 60여개 품목을 선보였다. 직거래 장터 운

영 기간 오프라인 판촉 행사, 온라인 연계 기획전, 현장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해 약 7,6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이번 직거래 장터에서는 광주신세계백화점 이벤트홀을 곡성군 농특산물 판매관, 홍보·전시관으로 구성했다. 특히 곡성군 관광 이미지 홍보를 위해 레일바이크와 장미꽃으로 조성된 이색적인 포토존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오는 15일부터 '곡성으로 떠나는 달강스! 빙(氷)강스!'라는 주제로 개최될 국내 유일의 '곡성 아이스크림 페스티벌'을 홍보해 큰 관심을 끌었다.

행사장에서는 성수기에 접어들어 명품 곡성멜론, 삼기 흑찰옥수수 등 제철 농산물이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우수 즉석 식품과 가공식품도 판매했다. 곡성군은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유기농 백세미 증정 이벤트 행사 등을 진행함으로써 직거래 장터 참여 업체를 지원했다.

곡성군은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롯데백화점 본점에서도 상생장터라는 이름으로 직거래 장터를 개최한다. 곡성군의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계획으로 지역 농특산물의 인지도를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곡성군 농정과 직거래장터 담당자는 "지역 생산자가 더욱 튼튼한 소득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곡성군 주관 기획전, 특별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며 "특히 대형 유통업체와 연계한 농특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곡성=한정길 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2022 세계 에너지저장시스템 엑스포'에 참가해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다. /광양경제청 제공

## 광양경제청, 세계 에너지저장시스템 엑스포 참가

### ESS 해외수출 최적지 홍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 경기도 고양시 컨텍스에서 개최된 '2022 세계 에너지저장시스템 엑스포'에 참가해 국내외 ESS(에너지저장장치) 관련 기업 대상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했다.

올해 14회째를 맞는 세계 에너지저장시스템 엑스포는 ESS 산업의 최신 이슈와 기술동향을

공유하는 네트워크의 장으로 ESS, ESS 관련 기술, ESS 부품·장비, 에너지 최적 소비용 컨트롤 엔지니어링 부문 등에 세계 15개국 200여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했다.

광양경제청은 이번 전시회에 전남도와 공동으로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며, 광양만권 내 ESS 수출제조기지 강점과 중국 축전지협회 및 한국 ESS산업진흥회와 업무협약 체결 등을 적극 홍보했다. /권동현 기자



곡성군이 광주신세계백화점 이벤트홀에서 '곡성군 농특산물 상생협력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 여수, 상생형 일자리 건설링 지원 간담회

여수시가 최근 노사발전재단 주관으로 '2022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건설링 지원사업 간담회'를 소노캄 컨벤션센터에서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4월부터 시작된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건설링 지원사업'의 진행과정을 공유하고 지방선거 이후 변경된 사업방향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노사발전재단,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담당 부처와 10개 지자체, 컨소시엄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여수시는 지난 4월 공모사업에 선정돼 노사발전재단, 한국농림협회의 협약을 맺고 '수소산업 기반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발굴'을 목표로 건설링 연구용역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성대 김중환 교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용철 소장 등 현장 전문단은 ▲수소분야 참여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적 지원 ▲지역 전략산업으로 수소연료전지 선박 시범사업 검토 ▲수소산업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와 밸류체인 구축 등을 제안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 순천 청수골 새뜰사업, 일자리 창출 '전국 모범'

### 국가균형발전위, 추진성과 공유

순천시 청수골새뜰마을이 새뜰사업의 모범 사례로 꼽히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새뜰사업의 대표적 모범사례로 불리는 '청수골새뜰사업'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청수골새뜰마을 사업지를 방문했다.

순천시는 주거 취약지역이었던 금곡동 일대에 소방도로 개설·도시가스 공급·하수관로 정비 등 생활인프라를 구축하고 협동조합을 조직해 버려진 한옥을 개조한 마을 식당 '청수정'을

운영하며 새뜰마을형 주민일자리 창출하고 있다.

이날 관계자들은 현장을 둘러보며 사업현황과 사업운영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 이명섭 국장은 "순천 청수골새뜰마을 사업의 성공 사례를 공유·확산해 신규 새뜰 사업지에서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청수골 새뜰사업의 성공은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사업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 한 결과"라며 "이 성공사례를 기반삼

아 현재 추진 중인 청수정 민관협력 사회경제 육성사업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 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 주관 새뜰사업에 선정 돼 5년간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년 연속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중앙부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2018년 대한민국 국토대전 특별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도시재생 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순천=박경식 기자

## 여수백병원, 프랑스로 어깨 인공관절 수술 선봬다

### '뿔루즈 어드벤스드~' 초칭

여수백병원 백창희 병원장이 10월 13일부터 3일간 프랑스 뿔루즈에서 열리는 '뿔루즈 어드벤스드 솔드 코스'에서 전 세계 어깨 의사들에게 60분간 생중계 되는 새로운 수술방법을 소개 하도록 프랑스 어깨학회의 초칭을 받았다.

여수백병원 백 병원장이 선보일 수술방법은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수술방법으로 내회전

소실을 지닌 회전근개건병증 환자에 대한 역행성 견관절 전치환술과 동반된 전방 광배근과 대원근의 병합 이전술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의 어깨 인공관절 수술은 수술 후 용변처리나 숙을 입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이를 인공 관절수술의 한계라고만 생각하고 포기하고 지내왔던 부분들에 대해 여수백병원이 특화된 힘줄 이전술을 인공관절 수술에 결합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 클릭! 고향 속으로



### 광양제철, 관계사 위한 편의시설 신설

광양제철소 도급부가 최근 관계사인 DCI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개소식을 열었다.

그동안 광양제철소 냉연·도금 설비의 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DCI는 마땅한 휴게공간과 샤워시설이 없어 휴식이나 퇴근 전 샤워에 불편을 겪었다.

이에 광양제철소는 4월부터 락커

룸과 샤워장 신설공사를 시작해 최근 공사를 마쳤다.

김준근 DCI 대표이사는 "직원들의 편안한 휴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줘서 고맙다"며 "앞으로 공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광양제철소 중요 설비가 안정적으로 운영돼 최고의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동현 기자



### 순천대, 호남 교직원 축구대회 우승

순천대 교직원 축구동호회가 최근 전북대에서 열린 제30회 호남지역국·공립대 교직원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순천대를 비롯해 전북대와 군산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전남대 등 호남권 6개 팀 3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으며, 조별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

됐다. 순천대 축구동호회 허남훈 감독은 "바쁜 중에도 매주 연습 경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준 선수단의 열정으로 값진 결과를 얻었다"며 "대학 구성원이 단결하면 여러 분야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긴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주연 기자



### 보성방과후아카데미, 제주 캠프 성료

보성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향'이 최근 2박 3일 동안 제주 캠프를 다녀왔다.

코로나19로 연기됐던 '놀멍 쉬멍 배와 보게 마심' 제주 캠프는 문화탐방과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번 제주 캠프는 벌교 지역의 굿플랜치와 벌교야마트의 후원금과

방과후아카데미 사업비 등 총 1,500만 원으로 추진됐다.

보성군 관계자는 "제주 캠프를 통해 학습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사제 및 교육 관계 개선과 참여 청소년의 결속력을 다졌다"며 "사회에 일익을 담당하는 미래 꿈나무들의 아름다운 행보로 소중한 기억될 것이다"고 말했다. /보성=백종두 기자